

6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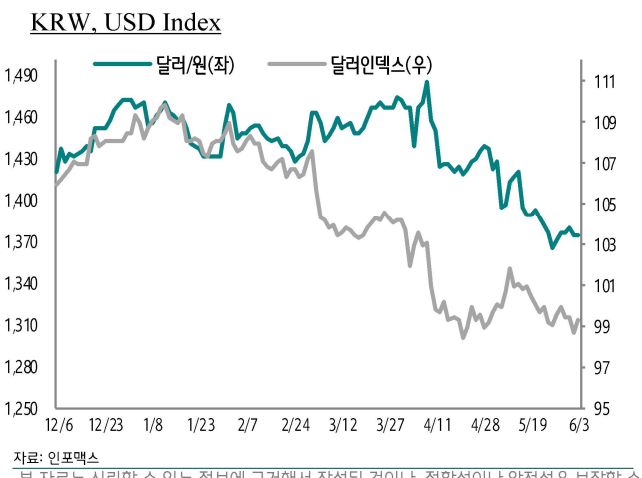
국내 불확실성
일단락,
달러원 강보합세
전망

[USD/KRW]

USD/KRW 예상 : 1,372~1,382원
NDF 증가 : 1,375.50 (Swap point : -2.80, 1,378.30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글로벌달러 강세에 상승 우세 전망. 서울환시 달러원은 연휴간 상승 마감한 역외 달러원 반영하여 1370원대 중후반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 다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감 및 이월 네고물량이 상당 제한할 요인. 다음주 FOMC 앞두고 미국의 주요 지표 발표 대기하며 제한적 흐름 예상되는 가운데 1380원 상단 테스트 시도할 것으로 전망.
- (전일 동향) 전일 달러원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에 따른 리스크오프 반영하여 1383.5원 상승 개장. 장 초반 네고물량 우세에 단숨에 1380원을 하향돌파. 미중갈등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도 글로벌달러 약세 반영하며 달러원 지속 하락, 1372.5원까지 저점 낮춘 후 낙폭 일부 되돌리며 1373.1원 정규장 마감.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미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 이월 네고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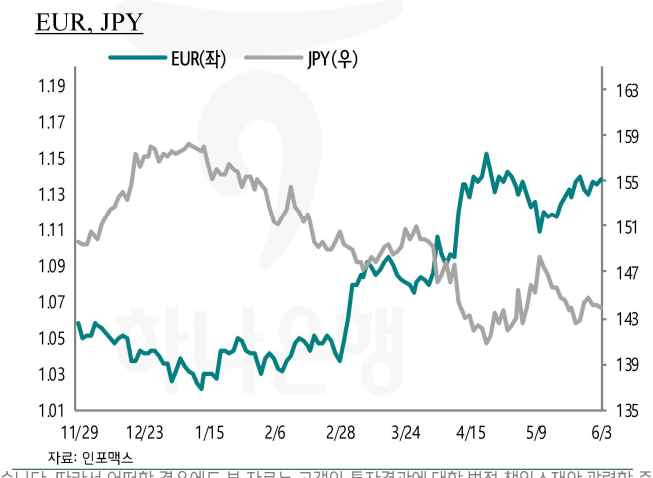
[Global Market]

EUR/USD 예상 : 1.1320~1.1420
USD/JPY 예상 : 143.40~144.40

- (USD Index) 글로벌달러는 유로 약세 속 미 4월 고용지표 호조에 반응하며 강세.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지난 4월 구인건수에 미-중 무역충돌 완화 기대감 더해지자 달러인덱스는 상방 압력 우세, 99.262 상승 마감함.
- (EUR) 유로는 예상치를 하회한 유로존 5월 CPI에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 부각되며 달러대비 약세 흐름. 유로달러 환율은 1.1443달러로 출발 후 거센 하락 압력 지속되며 1.1372달러로 뉴욕장 마감함.
- (JPY) 엔화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하며 달러 대비 약세 흐름. 달러엔 환율은 142.71엔 개장 후 지속 상승압력 받으며 144엔을 상향돌파, 144.11엔까지 고점 높인 후 143.99엔으로 뉴욕장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99.262 (+0.563)	
EUR/USD	1.1372 (-0.0071)	1,561.42 (-9.66)
USD/JPY	143.99 (+1.28)	953.61 (-8.52)
USD/CNH	7.1912 (+0.0181)	190.93 (+0.48)



[Macro Analysis]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50.0bp (전일대비 -0.4)

- 글로벌 금융시장은 美 4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서의 고용 호조에 영향 받는 모습.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 형성되자 반도체주 중심 강세 보이며 3대 지수 상승.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51% 상승한 42,519.64, 나스닥은 0.81% 오른 19,398.96, S&P500은 0.58% 뚝 5,970.37 마감. 미 국채수익률은 장 초반 영국 초장기물 국채입찰 호조에 하락세 보이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깜짝 고용 호조에 상승 전환. 안정적인 고용시장 확인되자 낙폭 되돌리며 단기물은 약세, 장기물은 소폭 강세 보이며 전장 대비 구간별 혼조세 마감. 유가는 캐나다 산불로 인한 공급차질 및 미국-이란의 지정학적리스크 재부각에 상승압력 우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소식 더해지며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함.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10:30	호주 1분기 GDP 증가율(QoQ)	0.2%	0.6%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5월)	52.0	51.6

